

저혈당을 부르는 약물

인슐린이나 경구혈당강하제를 사용하다보면 저혈당을 경험할 수 있다.

경구혈당강하제 중 설펜요소제는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분비하게끔 하는 인슐린분비 촉진제로서, 저혈당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설펜요소제는 제 1세대 약물과 제 2세대 약물로 구분되어지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세대 약물은 클로르프로파마이드(다이아베네스)가 있다. 이 약물은 작용시간이 48시간으로 가장 길어 하루에 한 번 복용만으로 혈당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감기가 길어 저혈당의 발생 위험이 크다.

제 2세대 약물은 1세대 약물과 혈당강하 효과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단위 용량별 혈당강하 효과가 커서 저혈당이 흔한 반면에 반감기가 짧고 작용시간이 길어 저혈당 이외의 부작용 빈도는 낮다.

2세대 설펜요소제의 종류로는 글리메피라이드(상품명: 아마릴, 글라디엠, 글레딘, 메피그릴), 글리클라지드(상품명: 디아미크롱, 디아미크롱 서방정),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질, 유글루콘), 글리퀴돈(상품명: 글루레눔), 글리피지드 (상품명: 다이그린) 등이 있다.

저혈당이 많이 발생하는 기존 설펜요소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글리메피라이드 약물은 1일 1회 투여로 혈당강하 효과는 유사하나 저혈당 발생위험이 낮다. 이 약물은 작용시간이 짧아 인슐린 분비가 빠르며 분비시간도 짧다.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혈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의 불균형으로 발생한다. 인슐린이나 약물요법 중인 환자가 식사를 거른 경우나 평소보다 식사시간이 지연되었거나 적게 한 경우, 식사량보다 활동, 운동량이 너무 많거나 공복에 운동을 과도하게 했을 때, 경구혈당강하제를 과잉 복용했을 때, 흔히 발생한다.

설펜요소제로 종종 저혈당이 발생한 환자는 자주 혈당측정을 해서 혈당의 변화를 살펴보고, 반감기가 긴 설펜요소제를 복용한 환자는 72시간 정도는 입원하여 혈당변화에 따라 적절한 약물의 조정이 필요하다. ✎